

西周 초기 금문 어휘와 이를 활용한 청동기 斷代 연구*

— 孟簋와 伯唐父鼎을 중심으로

金信周**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孟簋
 - 1. 宥
 - 2. 自
 - III. 伯唐父鼎
 - 1. 擘
 - 2. 咸
 - IV. 결론
-

I. 들어가는 말

중국 문자학에 있어서 금문 연구는 상당히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宋代 이래로 전해 내려온 청동기 관련 저작들을 필두로 근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명문이 새겨진 대량의 청동기가 속속 발굴되었고,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연구 영역 또한 청동기의 분류, 명칭, 명문, 문식, 제작과 가공, 시대, 진위 판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확장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청동기 명문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寶庫로서, 중국의 사회, 경제, 법률, 문화 등 각 방면과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역사서에 보이지 않는 중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 - 2009 - 332 - A00140).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요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청동기 명문의 자료적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금문은 중국 先秦 시기의 사회, 역사, 문화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 갑골문 및 죽간 자료와 함께 1차 텍스트로서 늘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청동기의 시대 판정이 不明하다면 아무리 많은 명문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증거자료로서의 가치를 일정 부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청동기의 斷代 연구는 청동기 연구의 중요한 영역이었고, 명문에 기재된 인물, 사건, 曆法, 字體, 어휘 등을 기준으로 삼아 해당 청동기의 시대를 판정해왔다.

주지하듯이 시대에 따른 어휘의 변화는 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휘는 사회의 변화에 극히 민감하며, 생산의 발전, 새로운 사물의 출현, 제도의 변천 과정, 풍습의 변화는 모두 어휘에 반영된다. 그러므로 각 시대의 언어에는 그 시대만의 특색이 녹아있기 마련이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명문의 어휘는 청동기 斷代 연구의 훌륭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물론 청동기의 시대 판정에 있어서 어휘가 標準 청동기처럼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다른 기준들과 함께 斷代 연구의 중요 수단으로서 큰 의의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어휘를 이용한 청동기 斷代法의 일환으로 서주 초기(武, 成, 康, 昭王) 금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斷代가 불분명했거나 異說이 있었던 청동기물의 시대 판정에 반영해보는 작업을 시도해보았다. 특히 개별 어휘 중 서주 초기에만 보이는 용법상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孟簋와 伯唐父鼎의 주조 시대에 대한 재조명을 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금문 어휘의 발전 및 변화에 대한 연구 공백을 보충해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청동기의 斷代 연구 방법에 대한 다각적 접근과 이를 통한 신빙성 있는 결과물 제공이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II. 孟簋

1961년 陝西省 長安縣에서 형태와 문양 및 크기(높이 24.5cm, 직경 23.4cm)가 대동소이한 3점의 方簋가 동시에 출토되었는데, 기물 제작자의 이름에 근거해 命名하는 관례에 따라 孟簋라 불리게 되었다. 현재 孟簋는 陝西省歷史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內壁에는 重文 2자를 포함한 총 42자의 명문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孟曰：朕文考眾毛公、趙(遣)¹⁾中(仲)征無需，毛公易(賜)朕文考臣自畢(厥)工，對揚朕考易(賜)休，用壺(茲)彝，乍(作)畢(厥)，子子孫孫其永寶。8.4162-8.4164²⁾ 孟殷

(孟이 말하길: 나의 훌륭한 아버지께서 毛公 및 遣仲과 함께 無需를 정벌하셨다. 毛公께서 나의 위대한 아버지에게 그의 工奴에서 치출된 노복을 하사하셨다. 나의 아버지가 입은 은택을 찬양하여 이 기물을 제작하니 후손들을 이를 영원히 귀중히 다룰지어다.)

孟簋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成王, 康王, 昭穆期, 穆王, 懿王³⁾ 등 서주 초기에서 서주 중기에 이르기까지 그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명문 중에 등장하는 毛公을 어느 시대의 인물로 볼 것인가에 따른 것으로, 毛公이 班簋 명문에도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이 두 기물을 연결시켜 그 시대를 比定하고 있다. 그러나 孟簋 斷代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班簋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도 크게는 成王과 穆王 및 기타 의견으로 갈리며 아직까지 정설이 없는 관계로 孟簋의 제작 시대에 대한 견해 또한 일치할 보기 어려웠다.

앞서도 설명했듯 청동기의 제작 시기를 가늠하는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사용될 수 있으며, 명문에 사용되는 어휘 또한 그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더욱이 사용된 특정 어휘가 시대적 특색을 강렬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참고 기준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필자는 孟簋 명문 중 특정 시기에 사용 빈도

- 1) 청동기 銘文의 釋文은 字形을 근거로 隸定한 것으로 銘文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는 () 안에 해당 글자를 넣어 표시하기로 한다.
- 2) 본고에 인용된 청동기 명문 중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에서 편찬한 《殷周金文集成》(北京, 中華書局, 1984-1994)의 탁본을 참고로 한 것은 이후 따로 서명을 표기하지 않고, 탁본 번호만을 명기하며, 기물의 명칭 역시 이를 따르기로 하겠다.
- 3) 郭沫若은 成王 때의 기물로 보았고(《長安縣張家坡銅器群銘文彙釋》: 《考古學報》1962年 第1期, 2쪽), 陳夢家是 康王 시기로 보았다(《西周銅器斷代》北京, 中華書局, 2004, 130쪽). 唐蘭(《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北京, 中華書局, 1986, 355쪽)과 劉啓益(《西周紀年》廣州, 廣東教育出版社, 2002, 222쪽)은 穆王 시기, 白川靜은 昭穆期(曹兆蘭 選釋《金文通釋選譯》武漢, 武漢出版社, 2000, 95쪽), 馬承源은 懿王 때의 기물로 보았다(《商周青銅器銘文選》〔三〕北京, 文物出版社, 1988, 191쪽).

가 두드러지게 높은 어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 기물의 제작 시기 판정에 참고 자료를 제공해보고자 한다.

1. 宥

우선 살펴볼 어휘는 '宥'이다. '宥'는 '宀', '宀', '宀'의 형태로도 쓰이며, 역대로 이 글자에 대해서는 '室說(方濬益, 孫詒讓)', '休說(吳闈生, 郭沫若, 楊樹達)', '亞'를 聲符로 하는 '家'의 初文으로 '嘉'로 읽는다는 說(馬敘倫), '宀'를 聲符로 하고 '하사하다'는 뜻의 '予'로 읽는다는 說(于省吾, 唐蘭), '宀'를 聲符로 하고 '鑄'로 읽는다는 說(郭沫若)⁴⁾, '貢'·'贛'說⁵⁾, '琮'의 表意初文으로 '寵'으로 읽는다는 說⁶⁾ 등의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 왔다. 글자 자체에 대한 고석에 대해 異見이 분분한 것과는 달리, 용법 분석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치된 의견을 보여 왔는데, '宥'의 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造' 혹은 '鑄'의 의미로 쓰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休'(은택, 돌보다, 보우하다)나 '賜'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孟篋에서는 전자의 용례가 보이고 있다. 다음은 '造' 혹은 '鑄'의 의미로 해석되는 '宥'의 용례이다.

- (2) 宥父丁隤(尊)彝. 6.3604 宥父丁
(부친인 丁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할 귀중한 제기를 제작하였다.)
- (3) 宥父乙. 10.5203 亞宥父乙卣
(부친인 乙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기를 제작하였다.)
- (4) 商(賞)貝十朋, 万剝用宥丁宗彝. 16.9894 戊鈴方彝
(貝 십 봉을 하사하니, 万剝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丁의 제사를 모실 종묘의 禮器를 제작하노라.)
- (5) 宰德(農)宥父丁. 4.2010 宰農宥父丁鼎
(宰農이 부친인 丁을 위해 제사드릴 때 쓸 鼎을 제작하였다.)
- (6) 王商(賞)小臣龔, 宥且(祖)乙.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2.396 小臣龔簋
(왕께서 小臣 龔에게 상을 내리시니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조부이신 乙을

4) 周法高主編《金文詁林(中)》(京都, 中文出版社, 1981), 1265-1267쪽 참조.

5) 陳漢平《金文編訂補》(北京, 社會科學出版社, 1993), 79-80쪽, 616-619쪽 참조.

6) 陳劍〈釋“琮”及相關諸字〉:《甲骨金文考釋論集》(北京, 線裝書局, 2007), 278-295쪽 참조.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기를 제작하였다.)

초기의 청동기 명문에는 ‘作+기물 제작 대상자’의 형태로, 정확한 기물명이나 기물 제작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형식이 자주 보인다. 예를 들어, ‘小子作母己’(10.5175 小子作母己卣), ‘守宮作父辛’(10.5170 守宮作父辛卣)은 기물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위 용례 중 (3), (5), (6)의 형식이 여기에 해당하고, 용례 (2)는 기물 제작자가 생략된 ‘作+기물 제작 대상자+기물명’의 격식으로 ‘作父辛寶尊彝’(4.2129 作父辛方鼎), ‘作員從彝’(15.9803 作員從彝)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 문형이 유사한 다른 명문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위의 ‘畝’는 ‘제작하다’ 혹은 ‘주조하다’의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으며,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2)-(6)의 용례는 모두 商代 말기에서 서주 초기의 기물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⁷⁾ 그 중에서도 특히 商代 말기의 청동기 명문에서 ‘畝’의 이러한 용법이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특징은 다음의 용례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 (7) 竹. 畝父戊. 16.9878-16.9879 畝父戊方彝
(孤竹國. 부친인 戊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祭器를 제작하였다.)
- (8) 亞囊. 畝父丁. 晉(孤)竹. 10.5271 亞囊父丁卣, 12.7293 亞囊父丁觚
(亞囊族. 부친인 丁을 제사드릴 때 사용할 제기를 제작하였다. 孤竹國.)
- (9) 亞囊. 畝父癸. 4.2427 亞囊鼎
(亞囊族. 부친인 癸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禮器를 주조하였다.)
- (10) 亞囊. 竹. 畝智光鬯. 4.2362 亞囊鄉宁鼎
(亞囊族. 孤竹國. 지혜롭고 위대하신 鬯을 제사드릴 때 사용할 제기를 제작하였다.)

위 네 용례 중의 ‘畝’은 앞뒤로 族氏名, 古國名, 청동기 제작 대상 등과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族氏名이나 人名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초기 금문 형식과의 비교 대조 및 ‘亞囊’, ‘孤竹國’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격식 중의 ‘畝’ 역시 앞의 (2)-(6)에 보이는 ‘畝’처럼 ‘제작하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7)-(10)의 기물은 모두 상대 말기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7) 구체적으로는 (2)-(4)는 상대 말기의 기물이고, (5), (6)은 서주 초기에 속하는 기물이다.

써 서주 초기의 기물인 (5)宰農宜父丁鼎과 (6)小臣簠簋를 제외하고는 ‘제작하다’는 의미로 쓰인 ‘宥’는 모두 상대 말기에 출현한다는 두드러진 특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孟簋의 제작 시기를 재고해보는 근거 자료로 활용해볼 수 있다. 즉 상대 말기에서 서주 초기에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주조하다’는 의미의 ‘宥’가 孟簋 명문에 쓰였다는 사실에 주목해본다면, 孟簋의 제작 시기를 서주 초기 쪽으로 앞당겨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休’나 ‘賜’의 의미로 쓰이는 ‘宥’ 역시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개의 용례 중 7개의 용례가 상대 말기에서 서주 초기에 출현하고 있고, 나머지 5개의 용례가 서주 중기에 출현하고 있으므로,⁸⁾ 이러한 현상은 ‘宥’가 서주 초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던 어휘임을 증명해주는 또 다른 방증이라 생각된다. 용법에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본다면 ‘宥’는 상대 말기에서 서주 초기에 출현 빈도가 높은 어휘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宥’의 시대적 특징은 孟簋의 제작 시기 판단의 참고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2. 自

‘宥’ 외에 孟簋의 시대를 比定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自’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孟簋 명문에서 ‘自’는 사물의 출처나 근원을 나타내며, 이러한 용법의 ‘自’는 서주 초기 명문에만 출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금문에서 ‘自’는 ‘자기 자신’, ‘스스로’, ‘지금, 이제’, ‘~로부터’, ‘~에 있어서는’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출처나 근원을 나타내는 ‘自’로 볼 수 있는 용례는 孟簋를 포함하여 3개밖에 없지만, 그 시대적 특색은 매우 명확하다.

우선 孟簋 명문의 ‘毛公易(賜)朕文考臣自屺(厥)工’에 대한 諸說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郭沫若은 ‘臣’에는 몇 개의 등급이 있고, ‘工’은 그 중의 하나로 ‘自屺(厥)工’은 ‘工 이하 등급의 노복(自工以下之臣僕)’의 뜻이

8) ‘休’나 ‘賜’의 의미로 쓰이는 ‘宥’의 금문 용례 중 상대 말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近出殷周金文集錄》 3.757 無壽觚가 있고, 서주 초기에는 5.2712 乃子克鼎, 5.2758 作冊大方鼎, 10.5399 孟卣, 11.6016 矢令方彝, 16.9901 矢令方尊,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 1.321 亢鼎의 총 6개 용례가 보인다. 서주 중기의 용례로는 5.2791 伯姜鼎, 7.4099 戴斝, 8.4139 櫛(楛)侯斝蓋,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 1.326 師酉鼎, 《近出殷周金文集錄》 2.485 冉簋의 5개 용례가 조사되었다.

라고 보았다.⁹⁾ 그러나 白川靜은 만약에 그러한 의미라면 소유격 지시대명사인 ‘𠄎(厥)’은 불필요할 것이며, 郭沫若이 동일한 ‘自’의 용법으로 제시한 5.2837 大盂鼎 명문의 ‘人鬲自馭至於庶人六百又五十夫’에서도 ‘𠄎(厥)’은 쓰이지 않았음을 지적했다.¹⁰⁾ 大盂鼎 명문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人鬲’, ‘馭’, ‘庶人’의 정확한 신분 및 이들의 노비 여부에 관한 논쟁으로 인해 역대로 이견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지만,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馭’와 ‘庶人’을 ‘人鬲’에 포함되는 신분 계층으로 보고, ‘馭에서 庶人까지의 人鬲 육백 오십 명’이라는 의미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만약 郭沫若의 주장처럼 孟簋와 大盂鼎 명문의 ‘自’를 같은 용법으로 본다면 孟簋 명문에서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𠄎(厥)’의 쓰임이 적절치 않다는 白川靜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唐蘭은 ‘毛公易(賜)朕文考臣自𠄎(厥)工’을 ‘毛公賞給我的父親奴隸由這功績’라고 해석했는데,¹¹⁾ 이것으로 보아 ‘自’를 이유나 원인을 뜻하는 어휘로 보고, ‘工’은 ‘功’과 통가되어 功績의 의미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문 ‘自’의 여러 용법 중 이유나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사한 다른 용례가 보이지 않으므로, 唐蘭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裘錫圭는 ‘自’가 출처나 근원을 의미한다고 보고, ‘毛公易(賜)朕文考臣自𠄎(厥)工’을 ‘毛公이 자신의 工奴 중 “臣”을 차출하여 孟의 부친에게 상으로 내렸다’는 뜻으로 해석했다.¹²⁾ 陳夢家和 馬承源 역시 裘錫圭의 의견을 따랐는데,¹³⁾ 陳夢家是 毛公이 無需를 정벌함으로써 노획한 포로 중의 일부를 상으로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裘錫圭는 동일한 용법의 증거자료로 7.4044 御正衛簋와 12.6514 中觶 명문을 제시했는데, 아래에서는 먼저 御正衛簋 명문 중의 ‘自’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9) 郭沫若 〈長安縣張家坡銅器群銘文集釋〉:《考古學報》1962年 第1期, 2쪽 참조.

10) 白川靜 通釋, 曹兆蘭 選釋《金文通釋選譯》(武漢, 武漢出版社, 2000), 93쪽 참조.

11) 唐蘭《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北京, 中華書局, 1986), 356쪽.

12) 裘錫圭 〈錫朕文考臣自厥工解〉:《古文字論集》(北京, 中華書局, 1992), 393쪽 참조.

13) 陳夢家《西周銅器斷代》(北京, 中華書局, 2004), 131쪽; 馬承源《商周青銅器銘文選》〔三〕(北京, 文物出版社, 1988), 192쪽 참고.

(11) 懋父賚(賞)卣(御)正衛馬匹自王. 7.4044 御正衛殷

(懋父께서 御正의 직책을 맡고 있는 衛에게 왕¹⁴)으로부터 온 말 네 필을 상으로 내리셨다.)

(11) 御正衛簋 명문의 ‘自王’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吳闓生은 ‘因王事而賚(임금을 위해 했던 나랏일로 인해 하사하다)’라고 해석했는데,¹⁵ 이는 御正衛가 왕을 위해 일한 공로로 懋父에게 상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을 따른다면, ‘自’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간주되며, 앞서 언급한 唐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용법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용례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 근거가 다소 박약하다고 할 수 있다.

容庚은 ‘自王’을 ‘衛歸自王所(衛가 왕의 처소에서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보았고,¹⁶ 郭沫若 또한 이 의견을 따랐다.¹⁷ 그러나 필자가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금문 중에서 이와 같이 ‘自’ 뒤에 처소명사가 출현하여 ‘自’가 어떤 행위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개사로 쓰인 경우, ‘自’ 앞에 모두 동사 성분을 동반하는 특징이 보였다. 예를 들어, ‘公返自周’(*《近出殷周金文集錄》*¹⁸ 2.484 保員簋), ‘異(趯)自它邦’(8.4331 卣伯歸夔殷), ‘唯還自征’(5.2810 噩侯鼎), ‘返自西觴’(1.83 楚王禽章鐘)¹⁹처럼 모두 ‘동사+自+처소명사’의 문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自’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容庚의 주장처럼 ‘自王’을 ‘衛歸自王所’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

楊樹達은 명문 내용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견해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는데, 기물명을 懋父簋라고 명명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懋父가 衛에게 상을 내

14) 陳夢家是 ‘王’을 ‘王城’이라고 해석했다.《西周銅器斷代》(北京, 中華書局, 2004), 34쪽 참조.

15) 吳闓生 《吉金文錄》(香港, 萬有圖書公司, 1968), 166-167쪽 참조.

16) 容庚 《武英殿彝器圖錄》(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76), 114쪽 참조.

17)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25쪽 참조.

18) 劉雨, 盧岩 編 《近出殷周金文集錄》(北京, 中華書局, 2002).

19) 각각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近出殷周金文集錄》 2.484 保員簋: ‘公返自周’(犀公께서 宗周로부터 돌아오다), 8.4331 卣伯歸夔殷: ‘異(翼)自它邦’(다른 나라에서 오다), 5.2810 噩侯鼎: ‘唯還自征’(정벌지에서 돌아오다), 1.83 楚王禽章鐘: ‘返自西觴’(西觴에서 돌아오다).

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衛가 賞賜者이고 懋父가 被賞賜者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금문 중 능동과 피동이 혼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賞’은 곧 ‘見賞’과 같은 것이며, ‘自王’은 ‘于王’의 뜻으로, ‘懋父賞御正衛馬匹自王’은 ‘懋父由王賞以御正衛之馬匹也(懋父가 왕에게 御正衛의 말 한 필을 하사받다)’로 풀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立論의 근거로 내세운 ‘自’의 피동 용법이 금문 중에는 단 한 차례도 출현하지 않고 있고, 의미상의 피동문이 아닌 표지가 있는 피동 형식은 모두 ‘于’를 이용해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²⁰⁾ (11) 御正衛簋 명문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²¹⁾ 또한, 楊樹達의 주장대로라면 문장 구조가 유사한 아래의 명문은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게 된다.

(12) 王易(賜)中馬自_𠄎22)侯(侯)四_𠄎23). 12.6514 中解
(왕께서 나에게 _𠄎侯의 말 네 필에서 유래한 말을 하사하셨다.)²⁴⁾

만약 위 명문을 御正衛簋와 같이 ‘被賞賜者+賜+賞賜物+于+賞賜者’의 구조로 간주한다면, 왕이 _𠄎侯(侯)’에게 말을 하사받게 되어 근본적으로 賞賜제도와 상치될 뿐만 아니라, 賞賜의 주체가 _𠄎侯(侯)의 말 네 필이 되므로 역시 이치상 맞지 않게 된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自’의 개사 구조를 관형어가 後置된 형식이라고 보기도 했는데,²⁵⁾ 문장 구조 분석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賞賜

20) 潘玉坤 《西周金文語序研究》(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5), 14-19쪽 참조
21) 우선 楊樹達이 근거로 제시한 명문 중 ‘史趙曹易(賜)弓矢于盧’(5.2784 十五年趙曹鼎)는 ‘史趙曹易(賜)弓矢于盧’의 誤讀이므로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다른 두 개의 용례는 ‘乍(作)冊麥易(賜)金于辟侯’(11.6015 麥方尊), ‘鬲易(賜)貝于王’(11.5956 鬲作父甲尊)인데, 공통적으로 ‘被賞賜者+賜+賞賜物+于+賞賜者’의 형식을 띠고 있어 (11) 御正衛簋 명문의 문형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비교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22) 隸定하기 어려운 고문자 자형은 拓本에 있는 본래 자형 그대로 표시한다.
23) _𠄎가 어떤 글자인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정설은 없다. ‘𠄎’, ‘𠄎’, ‘𠄎’, ‘𠄎’ 등으로 隸定하며, 앞에서 ‘王易(賜)中馬’라고 한 점과 ‘馬’가 글자의 구성 요소로 쓰인 점을 고려하면 말의 한 종류로 추측할 수 있다.
24) _𠄎侯(侯)’에 관해서는 이를 인명으로 보는 견해(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三] 北京, 文物出版社, 1988, 77쪽)와 ‘侯(侯)’를 ‘唯’와 같은 어조사로 보고 _𠄎를 지명으로 해석하는 견해(唐蘭 《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 北京, 中華書局, 1986, 288쪽)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풀이를 따르도록 하겠다.

者+賞賜 동사+賞賜物+自+명사구' 구문 중의 '自'가 출처나 근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위의 검토 과정을 통해 (11) 御正衛簋 및 (12) 中觶에 보이는 '自'의 용법이 孟簋와 마찬가지로 하사하는 물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면, 그 다음은 이러한 용법의 시대적 특색을 살펴볼 차례이다. 두 기물 모두 標準器物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주조 시대를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기물의 형태 및 명문 중 출현하는 인명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대강의 시기는 가늠해볼 수 있다. 먼저 (11) 御正衛簋의 주조 시대에 관한 의견으로는 成王, 康王, 昭王, 穆王이 있으며,²⁵⁾ (12) 中觶의 시대 판정에 대한 견해 역시 成王, 康王, 昭王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²⁷⁾ (11) 御正衛簋를 서주 중기인 穆王 시대의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데, 穆王은 서주 중기 중에서도 가장 앞쪽에 속하기 때문에, 출처를 나타내는 용법의 '自'의 유행 시기는 서주 초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금문에서 '自'는 '自乍(作)+기물명'의 형태로 부사로 쓰이거나 '自+장소 혹은 시간 명사'로 起點을 표시하는 개사 용법이 가장 일반적인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賞賜物의 출처를 표시하는 '自'의 용법은 비교적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서주 초기라고 하는 특정 시

25) 趙平安〈兩周金文中的後置定語〉;《金文釋讀與文明探索》(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192-193쪽; 潘玉坤《西周金文語序研究》(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5), 200쪽 참조.

26) 成王說을 주장한 학자로는 郭沫若《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25쪽), 容庚《商周彝器通考》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8, 34쪽), 陳夢家《西周銅器斷代》北京, 中華書局, 2004, 34쪽)가 있고, 康王說은 白川靜《白川靜著作集: 別卷 金文通釋 1〔下〕》東京, 平凡社, 2004, 748쪽), 昭王說은 唐蘭《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北京, 中華書局, 1986, 247쪽), 馬承源《商周青銅器銘文選》〔三〕北京, 文物出版社, 1988, 84쪽), 穆王說은 劉啓益《西周紀年》廣州, 廣東教育出版社, 2002, 220쪽), 彭裕商《西周青銅器時代綜合研究》成都, 巴蜀書社, 2003, 326-327쪽)이 각각 주장했다.

27) 成王說을 주장한 학자로는 郭沫若《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18쪽), 容庚《商周彝器通考》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8, 35쪽), 劉啓益《西周紀年》廣州, 廣東教育出版社, 2002, 77쪽)이 있고, 康王說은 陳夢家《西周銅器斷代》北京, 中華書局, 2004, 2쪽), 昭王說은 唐蘭《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北京, 中華書局, 1986, 288쪽), 馬承源《商周青銅器銘文選》〔三〕北京, 文物出版社, 1988, 77쪽), 彭裕商《西周青銅器時代綜合研究》成都, 巴蜀書社, 2003, 262-263쪽)이 각각 주장했다.

대에만 분포하고 있는 현상은 동일한 용법의 ‘自’가 보이는 孟簋의 제작 시대 추정에도 유용한 판단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孟簋 명문에 등장하는 ‘畝’와 ‘自’의 용법을 분석해보고, 해당 어휘의 관련 용법이 출현하고 있는 다른 기물들에 대한 시대 탐색을 통해 두 어휘가 모두 서주 초기에만 보이는 강렬한 시대적 특색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孟簋의 제작 시기에 관한 諸說 중 지금까지는 서주 중기의 기물로 보는 의견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특정 시대에만 보이는 비교적 특이한 용법의 두 어휘를 참고한다면, 孟簋의 시대는 최소한 穆王 이전으로도 추정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휘 사용의 습관성과 연속성이란 성질 때문에 어떤 어휘의 生滅 기간을 자로 재듯 정확하게 규정짓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또, 하나의 어휘가 출현하여 다른 어휘로 대체되는 과정에는 두 어휘가 공존하는 기간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자료에서 ‘畝’와 ‘自’가 서주 초기에만 등장한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孟簋의 제작 시기를 서주 초기로 속단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 일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기 시대 판정에 필요한 다양한 참고 기준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두 어휘가 반영하는 비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Ⅲ. 伯唐父鼎

伯唐父鼎은 1983년부터 1986까지 진행된 陝西省 長安縣 張家坡의 西周墓 발굴 작업에서 출토된 높이 22.4cm, 직경 18cm의 청동기로 현재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에 소장되어 있다. 기물의 내벽에는 66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乙卯, 王饗莽京. 王奉辟舟, 臨舟龍, 咸奉. 白(伯)唐父告備. 王各(格), 鬻(乘)辟舟, 臨奉白旂(旗), 用射絳, 虺(虺)虎、貉、白鹿、白狼于辟池, 咸奉. 王蔑曆, 易(賜)鬻(秬)一亩、貝廿朋, 對揚王休. 用乍(作)□²⁸公寶尊(尊)彝.

28) □는 잘 보이지 않거나, 원래 존재하지만 拓本에서 잘 보이지 않는 글자를 뜻한다.

《近出殷周金文集錄》 2.356 伯唐父鼎

(乙卯日에 왕께서 葦京에서 饗祭를 드리셨다. 왕께서 辟舟²⁹)를 위해 牽祭를 올리시고, 龍舟³⁰)에 친히 임하심으로써, 牽祭를 마치셨다. 伯唐父가 (뒤에 거행될 儀節의)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아뢰었다. 왕께서 도착하시고 辟舟에 승선하시어 친히 白旗의 신령께 牽祭를 지내시고 辟雍의 못에서 소³¹), 얼룩무늬(?) 호랑이³²), 담비, 흰 사슴, 흰 이리를 희생물로 射禮를 올리셨다. 牽祭를 다 끝냈다. 왕께서 (伯唐父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며 秬鬯酒³³) 한 단지와 貝 이십 봉을 하사하시니 (伯唐父는) 왕의 보살피심을 찬양하며 公께 제사 드리기 위한 귀한 제기를 제작하노라.)

- 29) ‘辟舟’가 어떤 배인지에 관해서 張政烺은 특수한 모양이나 용도의 배이거나 풍파에 강하다고 알려진 물새인 鷓鴣 모양이 그려진 배라고 보았고(《伯唐父鼎、孟員鼎、甗銘文釋文》; 《張政烺文史論集》 北京, 中華書局, 2004, 785쪽), 劉雨는 ‘辟’은 辟雍을 뜻하는 것으로 辟雍을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辟池에서 운행되는 배를 ‘辟舟’라고 설명했다(劉雨《伯唐父鼎的銘文與時代》; 《考古》 1990年 第8期, 741쪽).
- 30) ‘舟龍’에 관해서 張政烺은 용의 형상이 새겨진 배라고 보았고, 袁俊傑은 ‘舟龍’은 곧 ‘龍舟’이며, ‘龍’에 높고 크다는 뜻이 있으므로 용무늬가 새겨진 큰 배를 뜻한다고 보았다(《伯唐父鼎銘通釋補證》; 《文物》 2011年 第6期, 39쪽).
- 31) ‘紜’는 원래 소의 고삐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희생물로 쓰인 소를 의미한다.
- 32) 劉雨와 袁俊傑은 모두 ‘𧇧’을 얼룩무늬 호랑이로 해석했는데,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𧇧’은 ‘𧇧’ 및 ‘𧇧’과 같은 글자로, 이들 글자가 얼룩무늬란 뜻으로 쓰인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夏麥陵은 이 부분을 ‘厘(狸)、虎’라고 각각의 글자로 考釋했다(《伯唐父鼎諸器與西周水射禮》; 《紀念徐中舒先生誕辰110周年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成都, 巴蜀書社, 2010, 135쪽). 여기서는 일단 劉雨와 袁俊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하겠다.
- 33) ‘鬯’는 《說文·鬯部》에 “黑黍也.”라고 풀이되어 있듯이 검은 기장을 뜻하는 글자로, ‘秬’와 같은 글자이다. 뒤에 ‘一斗’가 출현하기 때문에 ‘鬯’를 원래 뜻인 검은 기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맥상 불가능하다. 袁俊傑은 금문 및 전래 문헌 중에 자주 보이는 ‘鬯(秬)鬯一斗’를 근거로 ‘鬯’는 ‘鬯’字가 공용으로 쓰인 ‘鬯鬯’의 古文 형태라고 주장했는데, 매우 타당한 분석이라 생각된다(《伯唐父鼎銘通釋補證》; 《文物》 2011年 第6期, 41쪽 참조). 劉雨는 ‘鬯’을 ‘秬’와 ‘鬯’의 두 글자로 각각 분리해서 考釋했는데, ‘秬’가 ‘秬’와 통가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런 견해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청동기 명문 중에서는 대개 ‘鬯’로 ‘秬’를 나타내기 때문에 袁俊傑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說文·鬯部》에는 ‘鬯’은 검은 기장에 鬱草(울금초)를 빚은 술이라고 되어 있지만(以秬釀鬱草), 일부 문헌에는 ‘鬯’이 鬱草를 섞지 않은 검은 기장으로 만든 술이라는 기록도 있으므로(《周禮·鬯人》의 鄭玄《注》: “鬯, 釀秬爲酒”), ‘秬鬯酒’가 검은 기장과 울초를 섞은 술인지 아니면 검은 기장만으로 담근 술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고증이 필요하다.

위에서 보듯 伯唐父鼎 명문에는 饗祭와 奉祭 및 水射禮가 언급되어 있는데, 특히 水射禮의 전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水射禮 관련 명문³⁴⁾의 공백을 보충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 伯唐父鼎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서주 초기라는 의견도 있지만,³⁵⁾ 대체적으로 서주 중기 穆王 전후 시기의 기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伯唐父鼎의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학자들은 이 기물과 함께 출토되었던 陶鬲이 서주 초·중기에 유형하였던 형태를 띠었다는 점을 근거로 昭王과 穆王 사이 시기의 청동기로 판정하였다.³⁶⁾ 또, 劉雨는 명문 중에 출현하는 ‘饗禮’를 선친이 별세한 후 종묘의 서열을 조정하기 위한 祭禮로 보고, 본 기물의 제작 시기를 昭王이 崩御한 후 穆王이 왕위를 계승한 초기라고 보았다.³⁷⁾ 이후 伯唐父鼎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劉雨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인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³⁸⁾ 劉雨가 ‘饗禮’의 성격 규명에 근거로 활용한 8.4330 沈子它毀蓋의 명문 내용이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饗禮’이 구체적으로 어떤 祭禮인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伯唐父鼎을 穆王 시기의 기물로 단정 짓는 것은 재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伯唐父鼎 명문에 사용된 어휘 중 시대적 특색을 잘 반영하고 있는 ‘奉’과 ‘咸’의 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伯唐父鼎의 제작 시기를 판단해보고자 한다.

1. 奉

‘奉’는 고문자 자료 중 자주 보이는 글자로,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글자

34) 水射禮 관련 명문으로는 3.753 公姑鬲, 4.2720 井鼎, 8.4207 鬲簋, 8.4273 靜簋, 11.6015 麥方尊,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2.426 老簋가 있다.

35) 陳英傑은 伯唐父鼎을 서주 초기의 기물로 표기했지만, 그 근거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西周金文作器用途銘辭研究》〔上〕北京, 線裝書局, 2002, 458쪽 참조.

3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灃西發掘隊〈長安張家坡M183西周洞室墓發掘簡報〉: 《考古》1989年 第6期, 528쪽 참조.

37) 劉雨〈伯唐父鼎의 銘文與時代〉: 《考古》1990年 第8期, 742쪽 참조.

38) 夏麥陵〈伯唐父鼎諸器與西周水射禮〉: 《紀念徐中舒先生誕辰110周年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成都, 巴蜀書社, 2010, 136쪽; 袁俊傑〈伯唐父鼎銘通釋補證〉: 《文物》2011年 第6期, 41쪽 참조.

의 편방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 글자의 本義 및 讀音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설은 없으나,³⁹⁾ 청동기 명문 중에서 ‘𦉑’ 및 ‘𦉑’를 편방으로 하는 글자들의 용법을 정리해보면 대략 ‘𦉑祭를 드리다’, ‘𦉑’나 ‘𦉑’의 의미와 유사한 ‘기원하다’, 수레의 장식, ‘보필하다’, ‘흠향하다’, 인명 및 지명 등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𦉑祭를 드리다’는 뜻으로 쓰인 ‘𦉑’는 갑골문에서는 ‘𦉑雨’, ‘𦉑年’, ‘𦉑生’처럼 제사를 드리는 목적(비, 풍년, 生育)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으나, 伯唐父鼎 명문에 쓰인 ‘𦉑’를 포함하여 금문 자료 중에 제사 관련 동사로 쓰인 ‘𦉑’는 제사의 대상 및 동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⁴⁰⁾ 과거 많은 학자들은 이 글자가 ‘祓’과 通假된다고 보고, 《說文》: “祓, 除惡祭也.”, 《玉篇》: “祓, 除灾求福也.”에 근거해 ‘𦉑’를 일종의 재액을 물리치는 제사행위로 해석해왔다. 또, 비교적 근래에는 ‘禱’와 通假되는 것으로 보고, ‘告事, 求福也.’(《說文》)의 의미로 풀이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⁴¹⁾ 청동기 명문 자료에는 ‘𦉑’가 어떤 과정과 의식을 지닌 제사 행위인지 자세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왕이 祭主가 되어 成周나 宗周에서 행해졌던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비교적 규모가 큰 祭禮를 거행한다는 의미의 동사임을 추측할 수 있다. 먼저 아래의 명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14) 唯成王大𦉑才(在)宗周. 5.2626 獻侯鼎

(成王께서 宗周에서 𦉑祭를 성대하게 올리셨다.)

(15) 王才(在)上侯(侯)屵(居), 𦉑. 5.2735 不指方鼎

(王께서 上侯에 계시면서 𦉑祭와 裸(?)祭를 드리셨다.)

(16) 明公易(賜)兪師鬯、金、小牛, 曰: 用禱. 易(賜)令鬯、金、小牛, 曰: 用禱. 11.6016 矢令方彝, 16.9901 矢令方尊

39) 孫詒讓은 ‘𦉑’의 독음이 ‘忽骨切’, ‘賁’의 가차자, ‘本’에서 파생된 ‘𦉑’의 세 가지라고 주장했고, 郭沫若은 두 손으로 풀을 뽑는 모양(‘拔’의 初文)인 ‘拜’에서 풀이 무성한 모양을 나타내는 부분이 ‘𦉑’라고 보았다. 龍宇純은 郭沫若의 주장을 이어 받아 ‘𦉑’는 ‘芑’의 初文으로 곧 풀뿌리라고 설명했다. 季旭昇 《說文新證》(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10), 808쪽 참조.

40) 이와 같은 이유로 劉源과 같은 학자는 ‘𦉑’를 ‘𦉑祭’와 같이 제사명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商周祭禮研究》(北京, 商務印書館, 2004), 25쪽 참조.

41) 冀小軍 《說甲骨文表中祈求義的𦉑字》; 《湖北大學學報》1991年 第1期, 40쪽; 陳劍 《據郭店簡釋讀西周金文一例》; 《北京大學中國古文獻研究中心》[2] (北京, 北京燕出版社, 2001), 391쪽 참조.

(明公께서 兗師에게 鬯酒와 銅과 송아지 한 마리를 하사하시며 ‘禘祭를 올리는데 쓸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夙에게는 鬯酒와 銅과 송아지 한 마리를 하사하시며 ‘禘祭를 드리는데 쓸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 (17) 隹(唯)王初禘才(在)成周. 14.9104 孟爵
(王께서 처음으로 成周에서 禘祭를 올리셨다.)
- (18) 王禘于成周. 3.935 圉甗, 7.3824 圉殷, 10.5374 圉卣⁴²⁾
- (19) 隹(唯)王禘于宗周. 8.4132 叔殷
- (20) 王酌大禘禘才(在)成周, 咸禘.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⁴³⁾ 2.320 叔矢方鼎
(王께서 成周에서 酌祭와 성대한 禘祭와 禘祭를 올리셨다.⁴⁴⁾ 禘祭를 다 마셨다.)

위의 용례에서 보듯이 ‘禘祭를 드리다’는 의미의 ‘禘’는 ‘禘’의 형태로도 쓰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鬯, 酌, 禘 같은 다른 제사 행위 관련 동사와 함께 출현하기도 한다. 伯唐父鼎 명문에서는 ‘禘’가 네 차례나 등장하고 있는데, ‘禘辟舟’나 ‘禘白旂(旗)’처럼 禘祭를 드리는 목적이나 대상이 동반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명문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제사 동사 용법의 ‘禘’가 특정 시기의 명문에 집중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래 표를 통해 ‘禘’가 보이는 청동기 명문의 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자.⁴⁵⁾

| 청동기명 | 각 학자들의 斷代 의견 | | | | | | | |
|------|--------------|----|-----|----|-----|-----|-----|-------|
| | 郭沫若 | 容庚 | 陳夢家 | 唐蘭 | 馬承源 | 劉啓益 | 彭裕商 | 기타 학자 |

42) 용례(18)-(19)은 문장 구조가 (14) 및 (17)과 대동소이하므로, 해석을 생략하겠다.
 43) 劉雨, 嚴志斌 編《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北京, 中華書局, 2010).
 44) 劉釗는 ‘酌大禘, 禘才(在)成周’으로 끊어 읽고, ‘酌大禘’를 ‘동사(酌)+목적어(大禘)’구조로 분석했다. ‘大禘’은 ‘大典(성대한 典禮)’로, 명문 뒷부분의 내용과 연결하여 ‘殷見’, 즉 제후가 왕을 알현하는 의식으로 풀이하고, ‘酌大禘’은 성대한 殷見禮를 위해 제사를 거행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叔矢方鼎銘文管見〉;《黃盛璋先生八秩華誕紀念文集》(北京, 中國教育文化出版社, 2005), 159-160쪽 참조.
 45) 각 학자의 斷代 의견 출처는 각주 26을 참고할 수 있다.

| | | | | | | | | |
|-----------|-------------------------------------------|----|----|----|----|----|----|----------------------------------------|
| (14) 獻侯鼎 | 成王 | 成王 | 成王 | 成王 | 成王 | 成王 | 康王 | |
| (15) 不指方鼎 | | | | 昭王 | 孝王 | 昭王 | 恭懿 | 昭王 ⁴⁶⁾ 穆恭 ⁴⁷⁾ |
| (16) 矢令方彝 | 成王 | 成王 | 成王 | 昭王 | 昭王 | 康王 | 昭王 | 昭王 ⁴⁸⁾ |
| (17) 盂爵 | 昭王 | 昭王 | 成王 | 康王 | 康王 | 康王 | | 康王 ⁴⁹⁾ |
| (18) 圜組器 | | | | 成王 | 西早 | 成王 | 成王 | |
| (19) 叔毀 | | | 成王 | 昭王 | 昭王 | 康王 | 康王 | 康王 ⁵⁰⁾ |
| (20) 叔矢方鼎 | 李伯謙(成王), 曹瑋(康王), 李學勤(西周早期) ⁵¹⁾ | | | | | | |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사 동사로 쓰인 ‘禘’의 용법은 斷代에 약간의 異見이 있는 (15)不指方鼎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주 초기에 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禘祭가 이 시기에 자주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禘’의 여러 의미 항목 중 이처럼 특정 의미의 용법이 특정 시기에만 빈번히 보이는 현상을 伯唐父鼎의 斷代 연구에 반영해본다면, 현재 穆王으로 보고 있는 이 기물의 시기를 어느 정도 서주 초기 쪽으로 조정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2. 咸

《說文》에서는 ‘咸’에 대해 ‘皆也. 悉也.’라고 그 本義를 설명하고 있다. 청동기 명문에서도 《說文》에서와 같이 ‘모두, 다’로 해석할 수 있는 일종의 범위부사로 쓰인 ‘咸’이 자주 보인다. 대표적인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46) 吳鎮烽《陝西金文彝編》〔下〕(西安, 三秦出版社, 1989), 851쪽 참조.

47) 周文〈新出土的幾件西周銅器〉:《文物》1972年 第7期, 9쪽 참조.

48) 王輝《商周金文》(北京, 文物出版社, 2006), 78쪽 참조.

49) 曹瑋〈叔矢方鼎銘文中的祭祀禮〉:《周原遺址與西周銅器研究》(北京, 科學出版社, 2004), 144쪽 참조.

50) 吳鎮烽《陝西金文彝編》〔下〕(西安, 三秦出版社, 1989), 846쪽 참조.

51) 李伯謙〈叔矢方鼎銘文考釋〉:《文物》2001年 第8期, 39쪽; 曹瑋〈叔矢方鼎銘文中的祭祀禮〉:《周原遺址與西周銅器研究》(北京, 科學出版社, 2004), 144쪽; 李學勤〈叔矢方鼎銘文考釋〉:《文物》2001年 第8期, 67쪽 참조.

- (21) 隹(唯)周公于征伐東尸(夷), 豐白(伯)、專(薄)古(姑)咸戕. 5.2739 暉方鼎
 (周公께서 東夷를 정벌하실 때, 豐伯과 薄姑를 모두 멸하셨다.)
- (22) 咸畜胤士, 龔龔(藹藹)文武, 銀(鎮)靜(靖)不廷. 8. 4315 秦公毀⁵²⁾
 (부자 세습이 되는 관리를 모두 수용하였고, 품위가 장성한 문관과 무관이 조정에 알현하러 오지 않는 제후국들을 평정하였다.)
- (23) 伊少(小)臣隹(唯)輔, 咸有九州, 處壘之堵. 1.276 叔夷鐘
 (小臣 伊尹이 보필하여 九州를 모두 차지함으로써 大禹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 (24) 武文咸刺(烈), 永業(世)毋忘. 1.157 屬羌鐘
 (文治와 武功이 모두 훌륭하니, 이를 영원히 잊지 말지어다.)

위의 용례 외에도 (22) 秦公簋와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咸畜左右’(1.262 秦公鐘)와 ‘咸畜百辟、胤士’(1.270 秦公罇)가 있다. 이처럼 범위부사로 쓰인 ‘咸’은 앞이나 뒤에 ‘咸’이 포괄하는 대상이 주어나 목적어의 성분으로 명시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 暉方鼎을 제외하고는 모두 春秋戰國시기에 출현한다는 시대적 특색도 눈에 띈다. 이러한 범위부사 용법의 ‘咸’은 전래문헌 상에서도 그 용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고대 중국어 관련 사전 내지는 서적에도 이 의미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咸’은 伯唐父鼎 명문에 두 차례 보이는데, 모두 제사 동사인 ‘率’와 결합하여 ‘咸率’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만약 伯唐父鼎 명문 중의 ‘咸’을 범위부사로 해석한다면, ‘咸’이 포함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후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咸’의 적절한 의미 항목을 탐색해보기 위해, 먼저 다음의 명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 (25) 王宜(徂)人方, 無攸(侮), 咸. 王商(賞)乍(作)冊般貝. 3.944 作冊般鬲
 (왕께서 人方을 치셨으니, 모욕당함이 없이, 모든 일이 끝났다. 왕께서 作冊般에게 貝를 하사하셨다.)
- (26) 隹(唯)三月王才(在)成周, 征(延)珅(禡)自葺(鎬), 咸. 王易(賜)德貝廿朋. 5.2661 德方鼎

52) 秦公簋 외에 16.10342 晉公盆 명문에도 ‘咸畜胤士’가 보인다.

(삼월에 왕께서 成周에 계시면서, 鎬京에서부터 시작된 武王께 드리는 禘(?)祭를 계속하셨다. 祭禮가 다 마쳐졌다. 왕께서 德에게 貝 이십 봉을 하사하셨다.)

- (27) 王命(命)毛伯(伯)更虢(城)公服, 虢(屏)王立(位), 乍(作)四方亟(極), 秉(繁)繁、蜀、巢令(命), 易(賜)鈴、鑿(勒), 咸. 王(命)令毛公(以)邦冢君、土(徒)駿(馭)、或人伐東或(國)瘡(滑)戎, 咸. 王命吳伯(伯)曰: 目(以)乃自(師)左比毛父. 8.4341 班殷

(왕께서 毛伯에게 명령하시길 虢城公의 직무를 인계받아 왕위를 보위하여, (왕이) 천하의 모범이 되시도록 하며, 繁, 蜀, 巢의 詞命을 책임지라고 하셨다. 깃발의 銅鈴과 말 재갈을 하사하시고, 冊命을 마쳤다. 왕께서 毛公에게 邦國의 군장과 보병과 거마부대 및 잡역부들을 이끌고 동쪽의 반란을 일으킨 오랑캐를 정벌하라고 명하셨다. 정벌을 마쳤다. 왕께서 吳伯에게 말 씀하시길 너의 군사를 이끌고 좌측에서 毛父를 도와주어라라고 하셨다.)

- (28) 我乍(作)柳(禦)宗(衆, 祭?)且(祖)乙、匕(妣)乙、且(祖)己、匕(妣)癸, 征(延)禘(鬯)二女, 咸, 肆(鬯)二茶貝五朋. 5.2763 我方鼎

(나는 祖乙, 妣乙, 祖己, 妣癸께 禦祭를 올리고 계속해서 두 祖母께 제사를 드렸다. 제사가 다 끝났다. 肆에서 鬯 두茶와 貝 오 봉을 하사하셨다.)

- (29) 王(飲)西宮, 登(蒸), 咸. 釐尹, 易(賜)臣隼、燹. 10.5431 高卣⁵³⁾

(왕께서 西宮에서 飲酒禮와 蒸祭를 올리셨다. 제사를 다 마치시고, 尹에게 상을 내리셨으니, 노복 隼과 燹을 하사해주셨다.)

- (30) 寧(粵)若(翌), 才(在)璧(辟)盤(雍), 王乘于舟, 爲大豐(禮), 王射大(供)禽, 戾(侯)乘于赤旂舟從, 死(尸)咸. 11.6015 麥方尊

(이튿날 辟雍에서 왕께서 배를 타시고 大禮를 행하셨다. 왕께서 큰 제사에 쓸 禽獸을 쏘셨고, 邢侯는 붉은 색 깃발의 배를 타고 수행했다. 邢侯가 주관하는 일이 모두 끝났다.)

- (31) 王才(在)葦京溼宮, 窺(親)令(命)史懋路(露?)簞(筮), 咸. 王乎(呼)伊伯(伯)易(賜)懋貝. 15.9714 史懋壺

53) 여기서 (29) 高卣 명문에 대한 끊어 읽기는 于省吾의 견해를 따랐다(《雙劍謠吉金文選》北京, 中華書局, 1998, 上三·廿七 참조). 현재 많은 학자들이 '咸釐, 尹易(賜)臣隼、燹'으로 끊어 읽지만, 이럴 경우 '釐'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어려운 점이 있다. 만약 '咸'을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건(제례)+咸+賞賜'의 일반적 격식에도 부합하게 되고, '釐'의 해석도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다만 뒤에 '揚尹休'라는 구문이 출현하므로, 이치상 尹이 기물 제작자인 高에게 행한 賞賜는 내용상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합리적이다.

(왕께서 葬京의 溼宮에 계시면서, 史懋에게 점대를 밖에 내놓으라고⁵⁴) 친히 명하셨다. 일이 다 끝났다. 왕께서 伊伯을 부르셔서 懋에게 貝를 하사하게 하셨다.)

위의 용례 중 (30) 麥方尊 명문 중의 ‘咸’을 제외하고 나머지 용례들은 모두 단독으로 句를 이루는 동사로 쓰였다. 앞 사건의 내용을 서술한 후, ‘咸’을 이용해 일이 ‘이미 끝났음’을 알리고 있으며, 이어서 다음 사건을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앞의 사건은 대부분 어떤 임무이고, ‘咸’은 이 주어진 책임이 큰 과오 없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며, 뒤에는 이러한 공로에 대한 賞賜가 행해지는 비교적 정형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런 ‘咸’은 ‘마치다’, ‘완료하다’는 뜻의 동사로 정의될 수 있으며, 어떤 일의 결과가 실수 없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는 금문의 상용 구문인 ‘休, 有成’과도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伯唐父鼎 명문의 ‘咸奉’에도 ‘咸’의 이런 의미를 적용시켜보면, 앞서 언급했던 범위부사 용법의 ‘咸’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하다. 즉, ‘咸奉’는 ‘奉祭 드리는 것을 끝냈다’라고 풀이할 수 있으며, ‘咸奉’처럼 ‘咸+동사 성분’으로 분석될 수 있는 구문의 출현 시기 조사를 통해 伯唐父鼎의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삼을 수 있겠다.

(32) 史獸獻工于尹, 咸獻工. 尹賈(賞)史獸, 易(賜)豕鼎一、爵一. 5.2778 史獸鼎

(史獸가尹에게 업무를 上申하였고, 업무 보고를 마쳤다.尹께서 史獸에게 裸(?)祭를 베풀어 주시고, 豕鼎 한 개와 爵 한 개를 하사해주셨다.)

(33) 王咸寡(誥), 賜(賜)貝卅朋. 11.6014 夙尊

(왕께서 훈계를 끝내시고 賜는 貝 삼십 붕을 하사받았다.)

(34) 王各(格)于呂畷(畷), 王牢于厯, 咸宜. 王命士道歸(饋)貉子鹿三. 10.5409 貉子卣

(왕께서 呂에 오셔서 사냥을 하셨다. 왕께서 厯에서 太牢(큰 제사)를 지내셨다. 제사가 모두 끝났다. 왕께서 士道에게 명하여 貉子에게 사슴 세 마

54) (31) 史懋壺 명문 중 ‘路筭(筭)’에 대한 해석은 이견이 분분한데,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方濬益(《綴遺齋彝器款識攷釋》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4, 卷十·八), 楊樹達(《積微居金文說(增訂本)》北京, 中華書局, 1997, 224쪽), 馬承源(《商周青銅器銘文選》[三]北京, 文物出版社, 1988, 159쪽)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다.

리를 보내라고 하셨다.)

- (35) 隹(唯)公大(太)史見服于宗周年, 才(在)二月既望(望)乙亥, 公大(太)史
咸見服于辟王, 辨于多正. 10.5432 作冊虢卣
(公太史가 宗周에 와서 朝見한 해이다. 이월 既望의 乙亥일에 公太史가
왕께 알현을 마치고 여러 집정대신들과 만났다.)
- (36) 王酌大禘奉才(在)成周, 咸奉.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2.320 叔矢方鼎
(王께서 成周에서 酌祭와 성대한 禘祭와 奉祭를 올리셨다. 奉祭를 다 마
쳤다.)
- (37) 王休宴, 乃射, 駿(馭)方卿(會)王射, 駿(馭)方休闌, 王宴, 咸餼(飲), 王
窺(親)易(賜)駿(馭)方玉五穀(穀, 珏), 馬四匹, 矢五束. 5.2810 噩侯鼎
(왕이 향연을 멈추고 射禮를 거행하셨고, 馭方은 왕의 射禮에 동참하였다.
馭方이 射禮를 끝내자 왕께서 향연을 (다시) 베푸셨고 마시기를 (잔치를)
마치셨다. 왕께서 친히 馭方에게 옥 다섯 쌍, 말 네 필, 화살 오백 (혹은
오십) 개를 하사하셨다.)

위 (32)-(37) 중에는 모두 ‘咸+동사 성분’의 구문이 출현하며, 모두 ‘어떤 일을 완성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런 용법의 ‘咸’은 ‘모두’를 의미하는 ‘咸’의 용법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며, 출현 시기로 볼 때, 서주 말기의 기물로 분류되는 (37)噩侯鼎을 제외한 모든 용례가 서주 초기 명문에 보이고 있다. 또한, (25)-(31)에서 다뤘던 단독 동사 용법의 ‘咸’ 역시도 (31)史懋壺의 용례를 제외하고서는 일찍이 商代 말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후⁵⁵⁾ 서주 초기에 집중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완료’라는 의미 범주에 속하는 ‘咸’은 사용 시기에 있어 매우 명확한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범위부사로 쓰인 ‘咸’이 (21)虿方鼎의 한 가지 용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춘추전국시기에 보이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현상으로, ‘咸’의 용법에 따른 시대적 특색을 伯唐父鼎 시대 측정의 바로미터로 활용한다면 현재 서주 중기로 여겨지는 伯唐父鼎의 제작 시기를 서주 초기로까지도 고려할 수 있겠다.

사실 시대에 따른 ‘咸’의 의미 고찰과는 별도로 필자를 계속 고민하게 했던 문제는 ‘咸’의 품사 분류에 대한 관정이었다. 범위부사로 쓰인 ‘咸’과 단독 용법의 동사로 쓰인 ‘咸’의 경우 각각의 품사를 규정짓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나, ‘咸+동사 성

55) (25) 作冊般鬲은 商代 말기의 청동기로 분류된다.

분' 구문 중의 '咸'은 보기에 따라 동사 혹은 시간부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咸'을 동사로 본다면 '咸+동사 성분'의 구문은 '술목구조'가 되는 것이고, '咸'을 시간부사로 본다면, '이미, 벌써'의 의미가 되므로 '부사어+술어' 구조로 분석될 수 있다. 실제 위의 (32)-(37) 중의 일부 용례에 대해서 학자에 따라 '咸'을 각각 다른 품사로 분석하는 이견⁵⁶⁾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호함은 '咸'과 유사한 의미 범주 어휘라 할 수 있는 '既'의 품사에 대해서도 그간 부사이냐 동사이냐의 견해 차이가 있어 온 것과 같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쟁은 대략 다음의 몇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첫째, 의미 해석만으로는 정확한 품사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이미, 벌써'와 '완성하다'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어떤 일의 완료 표지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볼 때 의미상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 항목이 '咸+동사 성분'에서 모두 별 무리 없이 해석이 적용 가능한데 기인한다. 바꿔 말하면, '벌써~했다'와 '~를 끝냈다'라는 두 의미가 큰 구분 없이 혹은 혼재되어 해석상에 반영되어도 결국엔 행위의 완료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모두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동사 앞에 쓰인 '咸'의 문법적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범위

56) 예를 들어, (34) 貉子卣 명문의 '咸宜'의 '咸'에 대해서는 범위부사와 시간부사라고 보는 견해가 병존하고, (35) 作冊虢卣의 '咸見服'의 '咸'에 대해서는 범위부사와 동사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필자는 두 용례 모두 범위부사 용법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금문에서 범위부사 용법의 '咸'은 한 용례를 제외하고는 東周 시기에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서주 초기의 기물인 (34) 貉子卣와 (35) 作冊虢卣의 시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34) 貉子卣 명문에 보이는 '어떤 사건이나 임무+일의 완성(咸)+이에 대한 賞賜' 격식이 전형적인 시간부사(혹은 동사) 용법의 '咸'의 형식과 일치한다. 셋째, (35) 作冊虢卣 명문에서 '咸'을 범위부사로 보고자 한다면 '咸'이 포괄하는 대상이 명시되거나 추측 가능해야 하는데 명문 내에서는 이에 관련된 단서를 찾기가 힘들다. 陳夢家是 '公太史가 여러 제후들을 인솔하여 왕을 알현한 것(公太史率諸侯使見於王)'했기 때문에 '咸見服'이라고 한 것이라 했지만(《西周銅器斷代》北京, 中華書局, 2004, 57쪽), 필자가 보기에 이는 다소 확대 해석한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내용이 명문에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먼저 왕을 배알하고 이 일을 큰 문제없이 마쳤다는 의미에서 '咸'을 썼다고 생각한다.

부사 '咸'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咸'의 전후로 그 포괄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주 비교 대상이 되는 '既'의 경우도 시간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품사를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존재한다. 반면, '咸+동사 성분' 구문의 경우, 품사 분류의 판정 척도가 될 수 있는 뚜렷한 어법적 특징이 보이지 않아 구분이 쉽지 않다.

셋째, 동사의 虛化와도 관련이 있다고도 생각된다. 금문에서는 분명 동사로 분류할 수 있는 단독 용법 '咸'의 용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 용법의 발생 시기는 商代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현존하는 청동기 명문 자료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咸'의 용법은 동사이며, 이후 동사의 虛化로 인해 부사 용법이 생겨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는 범위부사 용법의 '咸'이 東周 시기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그 일면을 엿볼 수 있으며, 동사 성분 앞의 '咸'이 동사인지 아니면 시간부사인지의 불분명함은 동사 '咸'이 부사로 虛化되는 과정 중의 흔적일 가능성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위와 같이 동사 앞에 쓰인 '咸'의 금문 품사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생각해본 가운데, 필자는 잠정적으로 시간부사로 보는 견해를 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상고 중국어에서 동사 성분이 목적어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대개 동사 성분 하나만 목적어가 되기보다는 동사를 중심으로 한 구문, 즉 동목적구나 주술 구조가 오는 경우가 더 보편적이기 때문에, '咸+동사 성분'을 동목적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咸'을 동사로 본다면 뒤의 동사 성분이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아니면 명사화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하기에 본고에서는 우선 동사 성분 앞의 '咸'을 시간부사로 보고자 한다. 향후 단음절 동사가 목적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및 상황에 대한 연구가 한층 정밀히 진행된다면 이런 용법의 '咸'의 성질을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여기까지 伯唐父鼎 명문에 등장하는 '夬'와 '咸'의 용법을 분석해보고, 명문에 쓰인 두 어휘의 특정 의미가 서주 초기에 집중 출현한다는 사실을 통해 서주 중기로 구분되는 伯唐父鼎의 제작 시기를 좀 더 앞당겨 再考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금문 중 동사 앞에 쓰인 '咸'의 품사의 성질에 대해서도 잠시 언

급을 해보았는데, 이런 ‘戚’을 동사 혹은 시간부사로 명확히 구분 짓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伯唐父鼎의 제작 시기 탐색을 위한 ‘戚+동사 성분’ 구문의 시대적 특색 규명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혀두고 싶다.

IV. 결론

본고는 각 시대의 어휘에는 출현 빈도, 용법 및 의미에 있어 해당 시기만의 특징이 존재한다는 각도에서 출발한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서주 초기(武, 成, 康, 昭王)에 보이는 금문 어휘들의 특징에 근거해 제작 시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孟簋와 伯唐父鼎에 대한 시대 比定 작업을 진행해보았다. 어휘를 포함하여 斷代 연구에 활용되는 다른 참고 근거들, 즉 인물, 사건, 曆法, 字體와 같은 요소들은 標準 청동기만큼의 확실성을 제시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다양한 기준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어휘 斷代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금문의 개별 어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연구 방법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孟簋에 보이는 ‘제작하다’는 뜻으로 쓰인 ‘曄’은 상대 말기에 집중 출현했다가 서주 초기까지만 등장하며, ‘曄’의 또 다른 용법(‘休’나 ‘賜’의 의미)도 60%가 서주 초기, 나머지 40%가 서주 중기에 보이고 있다. 출처나 근원을 나타내는 ‘自’ 역시 서주 초기에만 보이는 비교적 특이한 용법 중의 하나이다. 孟簋의 주조 시대에 대한 諸家들의 설을 종합해보면 서주 초기 成王에서 서주 중기 懿王까지 그 폭이 상당히 넓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어휘들은 시대 판정에 활용하기가 어려우므로, ‘曄’나 ‘自’처럼 특정한 용법이 출현하는 특정 시대를 주목해 이를 斷代 작업에 적용해 본다면 孟簋의 시기는 최소한 서주 초기까지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水射禮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伯唐父鼎은 ‘棼’과 ‘戚’을 통해 그 시대를 추정해볼 수 있다. ‘棼’은 금문에서 다양한 뜻과 독음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伯唐父鼎 명문에서 쓰인 제사 동사의 용법은 서주 초기에만 보이는 시대적 특색이 있다. 또, 부사와 동사로 모두 활용되는 ‘戚’의 경우, 범위 부사로 쓰인 용례들은 대부분 춘추전국시기에 보이지만, ‘일의 순조로운 완료’를 표시

하는 용법은 그것이 단독으로 쓰이는 동사이건 伯唐父鼎 명문처럼 ‘咸+동사 구문’의 형태이건 85% 가량이 모두 서주 초기의 명문에 등장하고 있다. 이밖에 단독 동사 용법의 ‘咸’에는 ‘사건이나 임무+순조로운 마무리(咸)+이에 대한 보상(賞賜)’과 같은 내용 및 격식상의 규칙도 발견되고 있다. 伯唐父鼎은 서주 중기 穆王 전후의 기물이라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왔지만, 위와 같은 ‘㮇’과 ‘咸’의 시대에 따른 용법상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穆王 前시기로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일의 순조로운 완료’를 나타내는 용법의 ‘咸’은 품사 분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 의미상의 밀접한 연관성, 문법적 특징의 불명확성, 동사의 虛化라는 견해를 제시해보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사의 성질 및 격식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함을 지적했다.

【參考文獻】

- 季旭昇師《說文新證》福州，福建人民出版社，2010
- 郭沫若〈長安縣張家坡銅器群銘文彙釋〉；《考古學報》1962年 第1期
- 郭沫若《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上海，上海書店出版社，1999
- 裘錫圭〈錫脤文考臣自厥工解〉；《古文字論集》北京，中華書局，1992
- 冀小軍〈說甲骨文表中表祈求義的㮇字〉；《湖北大學學報》1991年 第1期
- 唐蘭《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北京，中華書局，1986
- 劉釗〈叔夭方鼎銘文管見〉；《黃盛璋先生八秩華誕紀念文集》北京，中國教育文化出版社，2005
- 劉雨，盧岩 編《近出殷周金文集錄》北京，中華書局，2002
- 劉雨，嚴志斌 編《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北京，中華書局，2010
- 劉雨〈伯唐父鼎的銘文與時代〉；《考古》1990年 第8期
- 劉雨〈西周金文中的祭祖禮〉；《考古學報》1989年 第4期
- 劉源《商周祭祖禮研究》北京，商務印書館，2004
- 劉啓益《西周紀年》廣州，廣東教育出版社，2002
- 劉桓〈也談伯唐父鼎銘文的釋讀〉；《文博》1996年 第6期
- 李伯謙〈叔矢方鼎銘文考釋〉；《文物》2001年 第8期
- 李學勤〈麥尊與邢國的初封〉；《邢台歷史文化論叢》石家莊，河北人民出版社 1990
- 李學勤〈叔矢方鼎銘文考釋〉；《文物》2001年 第8期

- 馬承源《商周青銅器銘文選》北京，文物出版社，1988
- 武振玉〈兩周金文詞類研究(虛詞篇)〉吉林大學古籍研究所 博士學位論文，2006
- 潘玉坤《西周金文語序研究》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2005
- 方濬益《綴遺齋彝器款識攷釋》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2004
- 白川靜，曹兆蘭 譯《金文通釋選譯》武漢，武漢大學出版社，2000
- 白川靜《白川靜著作集：別卷 金文通釋》東京，平凡社，2004
- 吳闓生《吉金文錄》香港，萬有圖書公司，1968
- 吳鎮烽《陝西金文彝編》西安，三秦出版社，1989
- 王文耀《簡明金文詞典》上海，上海辭書出版社，1998
- 王輝《商周金文》北京，文物出版社，2006
- 容庚《武英殿彝器圖錄》臺北，臺聯國風出版社，1976
- 容庚《商周彝器通考》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8
- 于省吾《雙劍謠吉金文選》北京，中華書局，1998
- 袁俊傑〈伯唐父鼎銘通釋補證〉；《文物》2011年 第6期
- 游文福〈是《懋父簋》還是《御正衛簋》？—談商至西周早期銘文中的賞賜者和受賞賜者〉；
《中國文字》新37期
- 張世超，孫凌安，馬如森，金國泰《金文形義通解》京都，中文出版社，1996
- 張亞初《殷周金文集成引得》北京，中華書局，2001
- 張政烺〈伯唐父鼎、孟貝鼎、鬲銘文釋文〉；《張政烺文史論集》北京，中華書局，2004
- 曹璋〈叔矢方鼎銘文中的祭祀禮〉；《周原遺址與西周銅器研究》北京，科學出版社，2004
- 趙平安〈兩周金文中的後置定語〉；《金文釋讀與文明探索》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
- 周文〈新出土的幾件西周銅器〉；《文物》1972年 第7期
- 周法高主編《金文詁林》京都，中文出版社，198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殷周金文集成》北京，中華書局，1984-1994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禮西發掘隊〈長安張家坡M183西周洞室墓發掘簡報〉；《考古》1989年 第6期
- 陳劍〈據郭店簡釋讀西周金文一例〉；《北京大學中國古文獻研究中心》〔2〕北京，北京燕出版社，2001
- 陳劍〈釋“琮”及相關諸字〉；《甲骨金文考釋論集》北京，線裝書局，2007
- 陳夢家《西周銅器斷代》北京，中華書局，2004
- 陳英傑《西周金文作器用途銘辭研究》北京，線裝書局，2008
- 陳初生《金文常用字典》高雄，復文圖書出版社，1992
- 陳漢平《金文編訂補》北京，社會科學出版社，1993
- 彭裕商《西周青銅器時代綜合研究》成都，巴蜀書社，2003

夏麥陵〈伯唐父鼎諸器與西周水射禮〉：《紀念徐中舒先生誕辰110周年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成都，巴蜀書社，2010

洪家義《金文選注釋》南京，江蘇教育出版社，1988

【中文提要】

本文的出發點在於各時期的詞彙俱有其出現頻率、用法以及意義上的特徵。以這種觀點為出發點，通過考查西周初期(武、成、康、昭王)所見的一些金文詞彙，對歷來衆說紛紜的孟簋和伯唐父鼎進行斷代研究。其實，包括詞彙在內，其他斷代標準，如人物、事件、曆法、字體等因素，都不如標準器物提供準確的斷代信息。但是，從多方面考慮各種斷代標準的角度來看，這種詞彙斷代法的確起到積極作用，且能把可靠的金文詞彙研究成果提供給從事此研究領域的專家們。

首先，孟簋銘文裡所見的‘壺’字，意為鑄或作，這種用法的‘壺’字集中出現於商代晚期，至西周初期仍使用。另一種用法的‘壺’字(意為休或賜)，其用例的60%亦見於西周初期，其餘的40%則見於西周中期。表示出處或來源的‘自’字的用法較為特殊，也只使用於西周初期。關於孟簋的鑄造年代，從西周初期成王到西周中期懿王，諸家說法不一，莫衷一是。普遍出現的詞彙一般很難用為斷代標準，因此，這種像‘壺’字或‘自’字特殊用法出現於特定時期，非常值得注意，如果以此作為斷代參考標準，孟簋的鑄造時期可提前到西周初期。

伯唐父鼎銘文記載着有關水射禮的內容，其史料價值頗高，可填補古代射禮研究的空白。‘奉’字青銅器銘文裡有多種讀音和詞意，伯唐父鼎銘文裡的‘奉’用作祭祀動詞，而這種用法僅出現於西周初期。還有，‘咸’字用在句中是兼副詞和動詞，用為範圍副詞的‘咸’字絕大部分見於春秋戰國時期，表示‘完畢’或‘全過程順利結束’的‘咸’字的85%用例卻出現於西周初期。另外，表示‘完畢’的‘咸’字在金文裡單獨使用抑或跟另一個動詞連用(咸+動詞)，後者常見於‘事件或任務+咸+賞賜’的格式。伯唐父鼎的製造時期一般認為是西周中期穆王前後，而以‘奉’字和‘咸’字的上述時代特點為據，我們認為其斷代可能為穆王之前。

最後，表示‘完畢’的‘咸’字分不清楚其詞性，我們認為其原因在於以下三點：

沒有意義上的明顯區分；沒有語法上的特徵；動詞的虛化. 爲解決詞性問題，對動詞結構充當賓語的句子及其動詞的正確性質需要進行全面的分析.

【主題語】

서주(西周), 금문(金文), 청동기(靑銅器), 명문(銘文), 고문자(古文字), 단대(斷代)
Western Zhou Dynasty, Bronze Inscription, Bronze ware, Ancient
writing, Dating

투고일: 2012. 4. 15 / 심사일: 2012. 4. 22~5. 5 / 게재확정일: 2012. 5. 10